

<3차 예기본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1. 에너지전환; 대한민국 경제의 아킬레스건

글로벌 에너지전환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트럼프는 당선 이후 파리 합의에서 탈퇴하고 클린파워 플랜을 취소하는 등 반에너지전환 정책을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의 전체적인 에너지전환은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하반기부터 9개의 주들이 클린에너지 100% 목표를 확정했거나 준비 중이다. 이들은 미국 전체 전력소비량의 40%에 달한다고 보도된다. 최근 미국 북동부 연안의 석탄발전소들은 폐쇄되고 해상풍력 단지로 탈바꿈되고 있다.

영국도 오래된 원전을 폐쇄하고 신설하기로 했지만, 건설비용의 증가로 이를 해상풍력으로 대체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해상풍력 발전단가가 신설 원전인 힙클리포인트 대비 38% 낮은 것이 정책변화를 가져왔다. 올 상반기 영국정부는 Wind Sector Deal을 발표해 해상풍력 목표량을 2020년 10GW에서 2030년 30GW로 상향했다.

유럽은 단순히 에너지전환의 영역을 넘어서 산업 전체의 프레임을 저탄소구조로 바꾸고 있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급등하고 있고, 중심국가인 독일은 메르켈 주도로 연말까지 탄소세 도입 로드맵을 확정하기로 했다. 독일이 결정하면 유럽전역이 탄소세 도입을 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유럽이 자국업체들에게만 부담을 지우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FTA 체결 당사자인 대한민국에게는 탄소세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의 가혹할 정도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은 연초에 확정된 차량의 탄소배출 감축안 확정에서 재확인된다. 2021년 대비 2030년까지 37.5%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추가 감축해야되고 트럭과 버스의 감축계획도 세계 최초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전기차로의 전환에 실패하는 업체들은 유럽시장에 도태될 것이다. 전기차시장의 확대는 전 세계 에너지산업을 바꾸고 있다. 원유수요의 정점이 2025~2030년에 도달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빅오일 업체들은 석유탐사/개발 등의 업스트림 투자는 줄이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안정적인 화학 제품 제조를 위한 다운스트림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국내 정유업체들도 지난해 30년만에 최대인 15조원의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업체들의 화학공장 증설이 완료되고 생산이

본격화되는 2020년 중반부터 업체들의 치킨게임이 시작될 것이다. 원가 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업체들은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3차 에기본에서 제시한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35%는 미국, 유럽 등의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40~50년은 미국의 주요 주들과 유럽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은 70~100%로 추정된다. 에너지전환이 늦어지면 부작용이 산업전반으로 확산된다. 대표적인 예가 국내의 자동차산업이다. 최근 현대차 노조가 직접 나서서 전기차 확대에 따른 엔지/트랜스미션 부분의 대규모 고용감소를 밝힌바 있다.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선언한 기업들의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자체 소비전력뿐 아니라 공급업체들까지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애플이 대만의 팍스콘, TSMC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제품을 공급받기로 결정한 것이 대표사례이다. 우리 기업들에게도 동일한 압력이 있다. 하지만 전력산업구조 특성상 재생에너지를 직접 조달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기업들의 에너지전환이 막혀있는 상태이다. 탄소세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국내기업들에게 산업경쟁력 약화로 다가올 것이다.

현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의 재생에너지 관련업체들의 주가는 큰 폭 상승했다. 하지만, 현재 관련업체들의 주가는 오히려 출범 초기보다 더 하락한 상태이다. 국내에 사업기반이 없고 해외 풍력업체들이 주고객인 씨에스윈드만 주가가 상승했다. 정책의 효과를 선반영하는 주가의 흐름은 빨간등을 켜고 있다.